

2017년 시민사회의 과제와 전망

한국의 시민사회 역시 몇 가지 흐름들로 분류될 수 있고, 각 흐름들은 시민사회에 관한 서로 다른 생각과 경험을

발전시켜 왔다.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흐름들을 분류하고 설명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서는 시민

사회가 다른 영역—정부와 시장—과 맺는 관계와 그 관계 속에서 지니는 시민사회의 역할에 따라 ‘대항’, ‘호혜’,

‘자율’, ‘문제해결’ 등 4가지 영역으로 새로운 흐름이라 할 수 있는 ‘차별’과 ‘문제해결’의 흐름이다. 하지만 전통적인 두 가지 흐름 역시 실질적 민주주의의 심화와 경제 불황 속에 나타나는 새로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여지도자나 조직에 의해 ‘지도 받는’ 존재로 남아 있지 않은 가운데, ‘대항’의 흐름은 권력에 대해 어떻게 저항하며 간헐적으로 폭발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그간 시민사회가 이어온 시도들이 (지방)정부에 의해 정책으로 채택되는 제도화의 흐름 속에, ‘호혜’의 흐름은 ‘자율’과 ‘문제해결’의 흐름의 경우는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시민사회의 주체들이 ‘동원’되고 자율성이 저해되는 것에 관한 우려들을 기 위한 ‘작전타입’이 필요한 때다. 여기서는 향후 시민사회의 과제에 관한 화두들을 ‘주도성’, ‘자산’, ‘연결’, 그리고 ‘삶의

5월 민주화항쟁 3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는 많은 것들을 기념하고 논의하게 될 터인데, 여기에 시민사회를 위한 사회적 논의도 포함되 의 과제와 전망에 관해 몇 가지 화두를 통해 살펴봤다. 민주화의 진전과 관련해 ‘이중적 민주화’라는 개념이 있다. 민주화라는 것은 국가원들이 설정된다는 것이다. 민주화의 과정은 흔히 시민사회가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고 정치의 민주화를 이끄는 ‘정치민주화’으로의 확산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시민사회의 성숙이라는 ‘사회경제민주화’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뉜다.

회에 있어서도 시민사회가 정치민주화를 이끌어 냈던 첫번째 민주화의 흐름을 이어 받아, 이제 시민사회 스스로가 강해지고 평범한 사회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두번째 민주화’의 길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논의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정과 관련 논의들을 우리 시민사회에 곧바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서구의 그것과 지닌 공통성도 고려돼야 하지만, 먼저 경험과 자산을 발굴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다소 침체되고 과편화되는 경향을 띄고 있는 시민사회에 관한 화되고 서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민사회가 시민들의 삶의 과정에서 ‘도덕적 창고’에 넣어 두었다가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는, 삶과 사회를 우리의 의지대로 만들어 가는데 유용하고 즐겨 활용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더 많은 시도들이 나타나고 서로 연결되기